

데이터 경제 선도 · 일자리 확대

전북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공모

전북도,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 3개 사업 선정 국비 8억원 확보... 지역 청년 130여명 6개월간 기업서 인턴십 진행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되며,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공공기관과 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해 국민에게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구축·개발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도는 지난 3월 기업매칭 지원 공모 사업을 신청해 사업 타당성 검토와 평가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3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주정차 수요-공급 데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도내 도로·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의 청년 130여 명이 일경험수련생으로 채용돼 약 6개월간 기업에서 현장경험을 쌓게 되며,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시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역 청년들에게는 전문인력 수요-공급 데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구축·가공해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업매칭 사업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최초 추진... 5가구 미만 과소화 마을 거주자 인근 거점마을로 이주시켜 정주 여건 개선

전북도가 도내 5가구 미만의 과소화 마을 주민 중 이주 희망자를 인근 거점 마을로 이주시키는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 과소화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해 향후 성공 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 마을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거이전, 의료·복지, 일자리 등을 집약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압축 거점마을(Compacted village)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가구 미만의 농촌지역 과소화 마을 거주자 중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

상의 인근 거점마을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이주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 주거통합 거점마을에는 주거·문화·의료 및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정보통신,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거점마을의 부족한 의료·복지·문화시설 등 확충을 통한 기능 집약화로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공동체의 복원도 꾀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시·군은 해당 지역 과소화·거점마을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월 21일까지 전북도에 제출하면 된다.

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의 서류·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총 3개소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 과소화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최초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농촌 과소화를 경험한 일본처럼 다시 모으는 '압축도시' 주거통합마을 개념을 도입해 농촌마을 활력을 살리고,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5월부터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무료 실시

강사·서포터즈 모집

전북도가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할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도는 5월부터 도내 스마트폰 예매·결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고,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해 주민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및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할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사전모집(3.16.~4.9.) 대상자를 1차 채용을 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추가 인원 선발을 위한 2차 모집공고가 진행된다.

교육생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디지털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학과 졸업자나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보화교육(보조강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선발한다.

강사를 보조하고 디지털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서포터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 기본 활용소양을 갖춘 자나 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역량 보유자 중 선발한다.

월 70시간 강의 기준 강사는 175만원, 서포터즈는 10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강사 및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 수행기관인 KTCS 홈페이지(<https://recruit.ktcs.co.kr>)를 방문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한편, 이들이 강의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기초과정, 생활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기초 활용(앱 설치, 카톡 사용하기), 인터넷 검색, 비대면 원격교육 앱 활용 같은 디지털 기초 교육과 무인주문기 사용법(음식주문, 영화·교통 티켓 구매, 병원 수납, 민원서류 발급), 모바일 주문·결제, 교통정보 활용,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인, 사무용 프로그램 활용 등 디지털 심화교육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전화(1800-0096)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 착수

전북도, 착수보고회 갖고 전문가 컨설팅·사업부서 의견 수렴

전북도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인구 이동분석, 관광지 감성 분석,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대상지 선정 분석, 지방도 보수 우선순위 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한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생활인구 이동분석'은 도내·외 거주자의 시간대별 특정 지역 체류 상황을 통신 및 인구자료를 분석해 인구감소 지역과의 연관성·통근/통학·관광지 방문 분석으로 인구, 교통, 관광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관광지 감성 분석'은 소셜미디어 채널 속 고객 행동 패턴 수집과 고객 행동 경험 분석을 통해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등 관광 정책 수립에 이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지 선정 분석'은 산업단지외 중소 기업 밀집 지역 중 사업장 가동 및 매출실태 분석을 통해 중소 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선정해 세금 감면, 재정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한다.

'지방도 포장보수 이력·관리를 통한 보수 우선순위 분석'은 지방도 62개 노선의 도로 합몰지, 덧씌우기 구간, 노후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 이력 자료, 민원 자료, 기상·교통량 자료 등을 분석해 보수 우선순위 도출로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에 활용한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4가지의 빅데이터 과제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를 실무부서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 운영 최적화 분석'은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로 선정돼 전국지자체에서 활용하고있다.

조광희 도 주택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지역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선결 조건이다"면서 "올해 분석하는 현안 과제가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전북도가 초등생 건강증진과 도내 제철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총 9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 하순·5월 초순경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도내 398개교, 1만4,715명에게 신선한 과일을 무상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일 간식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GAP(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철 과일로 구성되며,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컵,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다.

학생 1인당 제공량은 1회 150g 내외로 주 1~2회, 연간 30회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정된 도내 업체는 남원원예농협동조합(전주시 등 11시·군 공급)과 익산원예농협동조합(군산, 익산, 김제)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급하는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토마토 등이 다.

/유호상 기자

문체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공모 김제시 선정

전북도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금산면에 소재한 4개 문화재를 연계, 금산사~금산교회~수류성당~증산법종교분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가 평가에서 최고의 콘텐츠라는 호평을 받았다.

금산면의 모악산 일대는 다양한 종교문화가 분포해 종교 간의 상생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 점이 이번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